

앙 골 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1,247천 km ²	G D P	982억 달러 (2016년)
인구	27.4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3,591달러 (2016년)
정치체제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Kwanza (Kz)
대외정책	친서방	환 율(달러당)	163.66 (2016년)

-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앙골라는 한반도의 5.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콩고공화국, 동쪽으로는 잠비아, 남쪽으로는 나미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과 동시에 독립운동단체였던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과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 간에 권력 쟁탈전이 시작되었으며, 1976년 구소련 및 쿠바의 지원을 받은 MPLA의 단독 집권 후 중앙정부(MPLA)-반군(UNITA) 간 내전이 2002년까지 27년 간 지속되었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은 제2위 산유국으로 석유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오랜 내전으로 인한 인프라 파괴와 인적자원 부재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의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둔화되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거듭 하락

- 앙골라는 고유가 지속, 광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01~10년 중 연평균 11.1%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며, 특히 2005~08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8.1%에 달하였음. 그러나 2013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 및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저유가와 세계 경기침체 지속의 여파로 석유 부문은 물론 비석유 부문의 성장까지 둔화됨에 따라 0.0%의 제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IMF는 2017년 1월 23일자로 완료된 앙골라 정부와의 경제정책 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내용을 담은 IMF Country Report No.17/39에서, 2016년 앙골라 경제의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의 실질성장률이 각각 0.8% 및 -0.4%에 그친 것으로 분석하였음.
 - 앙골라 정부가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외환통제를 실시하면서 원자재 수입에도 제약이 가해진 결과 제조업, 건설업 등 비석유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 2016년 11월 유가상승을 위한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원유수요 정체 등으로 유가상승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2017년에도 앙골라의 경제성장률은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유가 하락,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 앙골라의 재정수지는 2006~08년 중 고유가에 따른 국영 석유기업의 원유수출 수입(收入) 증가 등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원유 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16년 재정수지는 저유가에 따른 세수 감소 외에도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GDP 대비 -5.4%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 비율은 2017년에는 -6%대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됨.
- IMF는 앙골라에 대한 2016년도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에서, 앙골라 정부의 2016년 조세수입이 저유가 지속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했음에도 공공 부문의 인건비 지출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결과 2010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연료보조금 감축, 환율 상승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반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전으로 인해 2000년대 초까지 100% 이상의 하이 퍼인플레이션을 지속하였으나, 이후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유동성 증가, 긴축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2014년에는 7.3%까지 하락하였음.
- 그러나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연료보조금 감축, 경기침체로 인한 환자화 가치 폭락*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 2016년 상반기의 확장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에 34.7%로 급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환자화 실질가치 하락으로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 환자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은 2014년 9월 말 98.32에서 2016년 4월 말 165.88으로 급등하여 40.7% 평가절하되었음. 이에 결국 앙골라 정부는 4월 환자화를 미 달러화에 재차 페그(re-pegged)하여 1달러당 165.91환자로 환율을 고정하였으나, IMF는 동 환율이 금년 중 180환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재차 페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환자화/미 달러 환율(연간 평균) : 95.47('12) → 96.52('13) → 98.30('14) → 120.06('15) → 163.66('16) → 178.20('17^f)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제성장률	6.8	4.8	3.0	0.0	1.3
재정수지 / GDP	-0.3	-6.6	-4.9	-5.3	-6.7
소비자물가상승률	8.8	7.3	10.3	34.7	29.2

자료: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취약

- 앙골라는 석유를 생산·수출하는 다수의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석유 부문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과 세계 원유생산량 증감, 원유의 국제수요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정부는 농업, 제조업 등 비석유 부문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추진해 온 결과 GDP와 조세수입에서 석유 부문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수출에서는 여전히 석유 부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IMF는 앙골라에 대한 2016년도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에서, 석유 부문이 2016년 앙골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GDP의 20.7%, 조세수입의 54.2%, 총수출의 91.0%로 추정하였음.
 - 석유 부문의 GDP 비중과 조세수입 비중은 2012년(45.7% 및 85.0%) 대비 현저하게 낮아졌으나, 총수출 비중은 2012년(96.6%)과 큰 차이가 없어 원유수출액 변동이 여전히 무역수지와 외환보유고를 좌우하고 있음.

□ 내전으로 인한 열악한 인프라와 인적자원 부족이 경제발전 저해

- 27년 간(1975~2002년)의 내전으로 대부분의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종전 후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포장률이 20% 미만으로 여전히 저조하며 철도 운행 및 전력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임.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15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앙골라의 인프라 수준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41위로 최하위권이며, 특히 전력공급(138위), 도로(139위) 등 부문이 매우 취약함. GCI는 2015/16년 및 2016/17년에는 앙골라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UN개발계획(UNDP) Human Development Data에 의하면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한 교육 인프라 미비로 앙골라의 2014년 기준 평균 교육 이수기간은 5년에 불과하여, 제조업 발전을 위한 숙련 노동인력이 부족함.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앙골라의 원유 매장량은 2015년 말 기준 약 127억 배럴로 세계 16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2위 규모임.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도 2015년 약 183만 배럴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 2위이며, 영해(嶺海) 내에서 신규 유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 2016년 5월 Lower Congo Basin 및 Kwanza Basin 지역에서 원유 5.7억 배럴, 천연가스 2.5조 m³, 가스 컨덴세이트(특경질원유) 1.4억 배럴 등의 매장량이 새로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앙골라는 남아공, 보츠와나에 이어 아프리카 제3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2016년의 다이아몬드 수출액은 상품수출액의 3.9%인 10.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외에도 금, 석탄, 구리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광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 3각 자유무역지대(TFTA) 출범으로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 기대

- 2015년 6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26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3각 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TFTA)의 창설에 합의하였음.
 - TFTA의 목표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등 3대 지역협력체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것으로, 앙골라는 SADC의 회원국임.
 - TFTA의 역내 인구는 6억 명 이상이며, 역내 GDP 규모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아프리카 전체 GDP의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TFTA는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7년 중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TFTA 발효 시 무역장벽 완화로 현재 10%대 초반에 불과한 역내 교역규모의 증대는 물론 고용창출 및 투자활성화도 기대됨. 특히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을 통한 투자유치 증대가 기대됨.

다. 정책성과

□ 국가개발계획 등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 성과는 미흡

- 앙골라 정부는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13~17)을 통해 경제구조 다변화, 사회기반시설 개선, 국내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국민의 약 70%는 여전히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이며, 특히 2014년 이후의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만연된 부정부패 등이 경제개발을 저해하여 당초 목표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부정부패 등으로 사업환경은 세계 최하위

- 비석유 부문 육성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은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부정부패로 인해 부진한 수준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앙골라의 사업환경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182위에 불과함. 부문별로는 특히 자금조달(181위), 대외무역(183위), 계약이행(186위) 등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그쳤음.
 - 동 보고서에서 앙골라보다 순위가 낮은 8개국 중 베네수엘라와 콩고민주공화국을 제외한 6개국이 내전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앙골라의 사업환경은 사실상 세계 최하위임.

3. 대외거래

□ 유가 하락으로 상품수지 악화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

- 아프리카 제2의 원유생산국인 앙골라는 서비스·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로 2013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출액 감소로 2014년에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였음.

○ 2015년 이후 외환사용 제한을 위한 수입쿼터제 실시 등으로 상품수입액은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저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원유수출액 감소로 상품수출액이 4년 연속 감소하여 2016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8.2%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관자화 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지속**

○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전환 및 석유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감소, 환율상승에 따른 관자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계속 감소하여, 2016년 말 외환보유고는 2012년 대비 29.5% 감소한 233억 달러로 추정됨.

- IMF는 2017년 3월 22일 개최된 Paris Club 정기회의에서, 2017년 3월 기준 앙골라의 순외환보유고가 지난 8개월 간 40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약 30억 달러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대외차입 증가로 총외채잔액 증가 및 D.S.R 상승 추세**

○ 쌍둥이 적자 보전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말 42.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40%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외채원리금 상환액 증가와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말 9.9%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12%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o	2017 ^f
경 상 수 지	8,145	-3,748	-10,273	-8,044	-7,429
경 상 수 지 / G D P	6.5	-3.0	-10.1	-8.2	-6.1
상 품 수 지	41,916	30,590	12,489	11,788	13,986
수 출	68,247	59,170	33,181	31,034	31,580
수 입	26,331	28,580	20,693	19,246	17,594
외 환 보 유 액	32,414	27,795	23,474	23,282	19,433
총 외 채 잔 액	29,471	34,685	34,079	41,709	45,181
총 외 채 잔 액 / G D P	23.6	27.4	33.2	42.5	44.2
D S R	3.5	6.0	8.9	9.9	12.3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집권당이 장기집권 중이나 반대세력의 비판에 따른 불안요소 잠재

- 1979년부터 집권 중인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이 2012년 8월 31일의 총선에서 전체 200석 중 175석을 획득하며 승리함에 따라, 역시 1979년부터 집권 중인 José Eduardo dos Santos 대통령이 2022년까지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지난 2월 Santos 대통령은 오는 8월 예정된 총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고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였음. 이에 MPLA은 João Lourenço 국방장관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결정하였음.
 - 2010년의 개헌을 통해 앙골라의 정치 시스템은 대통령 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고,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대통령(국회의장 겸직)으로 선출되는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음.
- MPLA는 오는 8월의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여당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재정난에 따른 공무원 급여 지급 지연, 대통령의 부정축재 혐의, 인권 탄압 등으로 인해 반대세력의 불만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면서 정권 안정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집권당이 언론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앙골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내전의 재발에 대한 공포심이 뿌리 깊게 퍼져 있어 국민 대다수가 정치적 안정을 원하는 성향이 강한 편이어서 향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부정부패 만연으로 재정 및 국영기업 운영의 투명성 부족

- IMF 등 국제기구는 정부 재정 및 국영기업 운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구조개혁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만연 등으로 인해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조개혁 추진과 투명성 제고가 지연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조사·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앙골라는 2015년 168개국 중 163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도 176개국 중 164위(에리트레아와 공동)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Santos 대통령 자녀들의 권력 세습 시도에 대한 의혹

- Santos 대통령은 2013년 자신의 아들 José Filomeno dos Santos를 48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 Fundo Soberano de Angola(FSDEA) 의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2016년 5월 자신의 딸 Isabel dos Santos를 국영 석유회사이자 아프리카 제2의 석유회사인 Sonangol의 CEO에 임명한 바 있음.
- Jose의 FSDEA 의장 임명과 Isabel의 Sonangol CEO 임명은 Santos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권력을 가족에게 분산시켜 사실상 권력을 세습하고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의 첫 단계로 비판받음.
- Jose는 부친의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FSDEA 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Isabel도 Sonangol CEO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시됨. 그러나 이것이 정권 교체에 따른 것인지, 반대로 Jose와 Isabel이 부친을 계승하여 정치 전면에 나서기 위한 단계인지는 미지수임.
- Isabel은 앙골라 최대의 이동통신사 Unitel(보유지분율 25%), 앙골라의 Banco Bic 은행(보유지분율 25%), 포르투갈의 Banco BPI 은행(보유지분율 19%), 석유기업 Galp Energia(보유지분율 7%)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대규모 자산은 부친으로부터 편법 상속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경제전문지 Forbes는 Isabel dos Santos의 자산을 약 32억 달러로 추산하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꼽았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내전으로 파괴된 인프라 복구, 난민 문제 해결 등은 미흡한 수준

-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투쟁(1961~75년)과 뒤이은 내전(1975~2002년) 등 40년 이상 지속된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된 사회기반시설의 완전한 복구가 지연되고 있음.

- 아울러 내전 종료 후 주변국으로부터 귀국한 난민 110여만 명, 이재민 300여만 명 등에 대한 안정대책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지적됨.
 - 정부의 예산지출 우선순위가 원유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사회안정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족한 실정임.
- 내전 기간 중 반군이 앙골라 전역에 6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한 이후, UN의 주도하에 진행된 광범위한 지뢰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2만여 개의 지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국제기구인 “대인지뢰 및 집속탄 감시단”(Landmine & Cluster Munition Monitor)의 자료에 따르면, 앙골라는 전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나라로 인구 200명당 1명이 지뢰 피해자이며, 현재도 지뢰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 반정부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갈등 심화

- 2013년 11월 과거 반군 조직이자 현재 제1야당인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의 주도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자, 정부는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 120여 명이 구금된 바 있음.
- 한편, 2016년 3월에는 민주화 운동 지침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법원이 사회운동가 17명에 대해 국가 전복 혐의로 2~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초래하였음.

□ 이상기후에 따른 영양실조, 황열 유행 등 보건 문제 심각

- UN은 최근 앙골라에서 엘니뇨(El Niño) 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140만 명이상이 식량 부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양실조 발생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앙골라 정부와 협력하여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인 황열(yellow fever)의 예방백신을 1,900만 명의 앙골라인들에게 접종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는 등 보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3. 국제관계

□ 포르투갈어권(Lusophone) 국가들과 긴밀한 정치·경제적 유대관계

- 과거의 식민 종주국인 포르투갈, 역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모잠비크, 포르투갈어 사용국들 중 최대 경제규모를 보유한 브라질 등 포르투갈어권(Lusophone) 국가들과 긴밀한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

□ 투자 및 교역에서 중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 유지

- 중국은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앙골라 내전 종료 후 앙골라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앙골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앙골라산 원유를 대거 수입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 2002년 이후 중국의 대 앙골라 투자는 현재까지 170억 달러를 초과하는 규모로 알려졌음. 한편, 중국의 대 앙골라 지원은 대부분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국제기금, 중국국가개발은행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 기업들이 건설계약을 수주하는 형태임.
- IMF DOTS(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에 의하면, 중국은 2016년 앙골라의 수출액의 53.1%(전체 1위) 및 수입액의 11.9%(전체 3위)를 점유하여 앙골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임. 다만, 중국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최근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앙골라 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

□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국경 분쟁 및 외교적 갈등 상존

- 앙골라와 2,400km 이상의 국경선을 공유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은 2013년 자국 영해 내 해상유전(면적 약 4,000km²)에서 앙골라가 일일 50만 배럴의 원유를 채굴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앙골라 정부에 해양경계 관련 회담 개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 2004년 이후 앙골라는 자국 내에 불법입국하여 다이아몬드 불법채굴 등에 종사하는 콩고민주공화국 빈민 수천 명을 매년 추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빈민들에 대한 폭행은 물론 고문, 성폭력, 약탈 등이 자행되어 비난을 받는 등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국제기구 앞 채무재조정 및 구제금융 요청 경험 보유

- 앙골라는 과거 수차례의 채무재조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후 오일머니 유입을 바탕으로 2006년 12월 및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파리 클럽에 23억 달러의 채무연체액을 상환하는 등 외채구조를 개선하였음.
- 앙골라 정부는 2016년 4월 재정적자 심화 및 다른 외채상환부담 가중으로 2009년*에 이어 IMF에 1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으나, IMF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6월에 본 요청을 취소하였음.

* 2009년 IMF로부터 14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현재 상환 중

□ 외채구조는 양호한 편이나, 공공채무 비중 급증

- 2016년 말 단기외채잔액(25.6억 달러)은 총외채잔액(417.1억 달러)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 5월 말 기준 OECD ECA 앞 외채잔액의 경우도 단기외채(1.3억 달러)가 전체(48.8억 달러)의 2.6%에 불과하여 외채구조는 양호한 편에 속함.
- 다만, IMF는 앙골라에 대한 2016년도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에서 앙골라의 2016년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71.6%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는 2012년 수치(GDP의 29.5%)의 2.4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과중해진 것으로 우려됨.
 - IMF는 상기 보고서에서 앙골라 정부가 구조적 재정개혁을 통해 비석유 원천재정수지*를 매년 GDP의 1%씩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채무를 감소시켜야 하며, 아울러 외환시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행정조치 및 제한의 완화를 통해 환율 유연성의 증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음.

* 원천재정수지(primary fiscal balance) : 금융비용(부채 이자) 지불 전의 재정수지
 ⇨ 종합 재정수지가 적자라도 원천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 차입을 늘리지 않고도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들, 앙골라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앙골라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2016년 한 해 동안 동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6.6)	5등급 (2015.6)
Moody's	B1 (2016.4)	Ba2 (2014.8)
Fitch	B (2016.9)	B+ (2015.9)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 1. 6 (북한과는 1976. 4. 15 수교)

□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 협력협정('93),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00), 외교관 및 관용여권소지자 사증면제협정('09)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6년 말 기준 15건, 12,661천 달러(누계기준)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16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7.3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석유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LPG, 동(銅)제품 등임.

〈표 4〉 한·앙골라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1,800	1,859	553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석유제품
수 입	150	143	174	원유, LPG, 동(銅)제품
교역규모	1,950	2,001	726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앙골라 경제는 지난 10여 년 간 고유가에 따른 석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음. 그러나 2012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반전되며 성장률이 지속 둔화되어, 2016년에는 0%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유가 하락, 원유 생산량 감소 등 석유 산업 부진에 따른 재정수입 및 수출 감소로 인해 재정·경상수지가 각각 2013년, 201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쌍둥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1979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MPLA이 2017년 8월의 총선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부정부패와 언론 탄압 및 시민사회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정치·사회 불안요소로 잠재되어 있음.
- 쌍둥이 적자 보전과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최근 수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40%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4월 재정난 및 통화가치 급락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동국의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6664)
E-mail : oki1122@koreaexim.go.kr